

- 주요 뉴스: 세계 주요 은행, 금년 미국의 경기침체 및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을 예상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
 - 유로존 '22년 12월 제조업 PMI(확정치), 전월비 상승.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발신
 -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정부지출 확대를 강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증가
- 국제금융시장: 다수의 국가에서 휴장인 가운데 유럽 경제지표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주식시장은 새해 첫 날을 맞아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제조업활동 반등 기대, 저가매수 등으로 1.0% 상승
 - 환율: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0.4% 하락
엔화 가치는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 등으로 작년 6월 이후 최고치
 - 금리: 미국 국채시장은 새해 첫 날을 맞아 휴장
독일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1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69.3원, -3.3원) 0.2% 하락, 한국 CDS 보합

		1/2일	12/30일	전일대비			1/2일	12/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3,839.5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3.87%	-
	유럽	428.95	424.89	0.96%		독일	2.44%	2.57%	-13bp
	중국	휴장	3,089.3	-		영국	휴장	3.67%	-
	일본	휴장	26,095	-	CDS 5y	한국	55bp	55bp	0bp
	한국	2,225.7	휴장	-0.48%		중국	75bp	75bp	0bp
	달러지수	휴장	103.52	-	위험 지표	EMBI+	-	375	-
환율	유로화	1.0667	1.0705	-0.35%		VIX	휴장	21.67	-
	엔화	130.80	131.12	0.24%		WTI유	휴장	80.26	-
	위안화	휴장	6.8986	-		원자재	구리	휴장	381.1
	원화	1,272.60	휴장	-0.64%		금	휴장	1,824.0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세계 주요 은행, 금년 미국의 경기침체 및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을 예상

- WSJ가 2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들은 금년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 이외에 2개 은행은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시했고, 5개 은행은 금년과 내년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분석
-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및 성장 둔화를 위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은행대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요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가계저축(2.3조달러→1.2조달러)이 크게 감소하며 실업률(3.7%→5.0%)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다만 경기침체는 경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
- 한편 연준은 1/4분기 추가 금리인상, 2/4분기 금리동결을 각각 결정한 이후 3/4~4/4분기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금년 연방기금금리 목표(현재 4.25~4.50%)는 6월에 5.00~5.25%까지 상승한 이후 연말에 4.50~4.75%까지 하락할 소지
- 증시는 경기침체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저점 통과 가능성이 제시. 23개 은행의 S&P500지수 연말 전망치 평균은 전년말 대비 5% 높은 수준. 다만 Barclays 등 일부 금융기관은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 상태라며 금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위한 노력 지속

- 의회는 '22년 12/30일 뉴욕거래소,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퇴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승인. 최근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상황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

- 나겔 총재는 기업과 가계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으며,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 아울러 지금은 통화긴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이는 경제에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첨언

■ 유로존 '22년 12월 제조업 PMI(확정치), 전월비 상승.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발신

- '22년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는 47.8을 기록하여 전월(47.1) 대비 높은 수준. 생산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활동 전망에 긍정적. 특히 투입비용 감소 등 공급망 차질 개선 및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징후가 발생. 아울러 에너지 위기 우려도 다소 진정(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 독일의 '22년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 역시 상승(46.2→47.1). 원자재 매입 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가격이 '20년 11월 이후 최저

■ 중국 '22년 12월 주택가격, 전월비 하락세 심화.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기인

- 부동산조사업체 China Index Academy에 따르면, '22년 12월 10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은 전월비 0.08% 내려 11월(-0.06%) 대비 하락폭이 증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지만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중국 민간조사기관 CBBI, '22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추정

- 중국 베이징북 인터내셔널(CBBI: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은 4300여개 기업 대상의 조사를 통해 작년 4/4분기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 기업의 고용, 판매, 이익 등이 모두 전기비 및 전년동기비 감소했다고 발표. 부동산부문의 경우 거래, 가격 등이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이에 따른 투자 부진 등에 기인

■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정부지출 확대를 강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증가

-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양극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발언. 또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및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이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감세 확대 기조도 중단하겠다고 강조. 다만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장기 경제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2년 11월 건설지출, 독일 '22년 12월 소비자물가 및 실업률
- 중국 '22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의 성장 억제, 미국과 유럽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 - Financial Times

(Stopping China's growth cannot be a goal for the west)

- 중국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고, 중국 부동산 경기의 붕괴는 국제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우려. 또한 중국경제의 문제는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미칠 수 있어, 중국 제재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은 보다 주의할 필요
-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세계의 평화 및 번영 역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 반면 중국의 성장 가속화는 세계경제에 위협. 이에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향후 미국과 유럽 등에게 매우 중요
- 서방국가들이 군사적으로는 호주, 인도 등과 공조하여 중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으나, 무역이나 기술 문제의 경우 동맹국과의 이해관계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 이에 중국의 성장세가 인근 국가와 교역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과제

■ 미국 기업, 직원 퇴사 방지 위해 높은 임금을 제공.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 WSJ

(Stay for Pay? Companies Offer Big Raises to Retain Workers)

- 작년 11월 직장에 잔류한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각각 5.5%, 7.7%를 기록하는 등 임금상승이 가속화. 이는 실업자대비 많은 구인건수 등으로 기업들이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 다만 작년 11월 평균임금의 연간 상승률은 5.1%로 작년 3월(5.6%) 정점 이후 둔화세 지속
- 전문가들은 임금상승세 지속을 예상하나 높은 이직률 고려 시 상당한 수준의 임금상승 압력은 유지될 가능성. 다수의 기업들은 임금부담 상쇄를 위한 제품가격 인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최근 둔화된 소비자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채권시장, 금리전망 예측 오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WSJ

(For Battered Bonds, Threats of Further Losses Linger)

- '22년 미국 채권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 하락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 기인. 한 동안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근거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4.6%로 예상. 이는 연준이 12월에 제시한 예상(5.1%)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반면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둔화되고 있으나 노동비용 등이 금리인하를 고려하기에 여전히 높다는 입장. 만약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년 채권가격 하락과 주식에 대한 강한 매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시장원리에 충실한 에너지 위기 극복. 유럽경제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A resilient Germany is weathering the energy crunch)

- 일부에서는 독일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배급제 시행 혹은 대규모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은 새로운 현실을 맞아 생산활동의 큰 충격 없이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는데(최근 3년 대비 20% 감소) 성공
-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24년에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 축소는 전기가격 안정과 에너지 가격 왜곡 방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 이는 특히 시장원리를 따르는 에너지 위기 대응이 효과적임을 제시. 아울러 유럽이 생산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 축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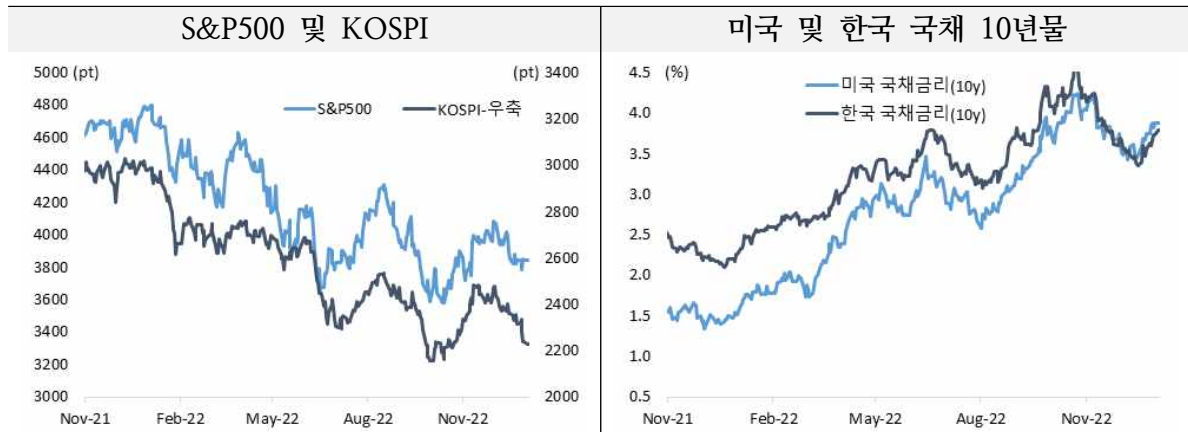
■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자 손실 증가할 소지 - Financial Times

(Commodities trading boom raises fear of big losses among retail investors)

■ 유럽계 은행, 수익 및 효율성 증대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할 필요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lockchain could upend bank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